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전 1:18)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 선교를 하게 하소서

대만에서 저희에게 열어 주시는 길은 중국에서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법적인 제재대신 우상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섬나라의 특징인 각종 수호신이 불교 도교와 혼합되어 강력한 전통문화를 형성하고 있기에 선교역사가 한국보다 길건만 교회부흥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가 협력하게 된 교회는 대개 개척교회이거나 역사는 오래 되었으나 20명이하의 교인에 머물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방이 사당과 우상단지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에 이 교회를 지켜갈 목자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이 바로 저희가 주력하는 일입니다. 현재 신베이시의 北大 교회, 이란현의 三星교회, 신주현 주베이의 愛家福音堂교회와 협력목회를 하게 된 데 이어 이번달에 신주현 橫山 교회를 방문하여 앞으로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곳의 협력교회 (빨간 표시)

베이따(北大) 교회

이번 춘절 명절기간에 두 분의 장례식과 한 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12,13일에 세 개의 예식이 겹쳐서 담임 목사님이 큰 수고를 하였고 저희 부부도 함께 참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전체 80여명의 교우 중 같은 날 두 분이 소천을 한 것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사모님과 집사님 두 분 모두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로서 이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장례예배가 안 믿는 참석자들을 위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유족의 부탁대로 모든 교우가 다 참여하여 장례를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순례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예식만큼 강력한 전도는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初代 목사 사모님의 장례 예배

사랑복음 교회(愛家福音堂)

이번 달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愛家福音堂에 방문하여 심방하고 주일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여 雨中에도 교우들의 집 심방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기를 주저하여 문밖에서 마전도사님과 우리 부부 셋이 그 집 대문을 향하여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계속 권하여 교회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주일까지도 비가 그치지 않고 거센 비바람에 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여서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마음이 졸이며 교우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온 자매는 놀랍게도 항상 늦게 교회에 오던 장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싱글맘으로 세 딸을 키우느라 심신이 힘들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웠는데 최근에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눔의 시간 및 식사 교제(애찬)

저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전했고 그들 입으로 이를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예배 후 함께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나눴는데 그날 식사를 준비한 자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자기가 재배한 유기농 채소로 모두의 점심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더 기뻐던 것은 비록 예배시간에는 오지 않았지만 전날 심방했을 때 거절했던 그 자매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함께 오후에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매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자기의 불우했던 과거 얘기를 털어놓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흥산(橫山) 교회

마 전도사님을 통하여 산촌에 위치한 橫山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찬양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라 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서 잠깐 인사만 하고 일어서려 했는데 그분들이 건네 준 악보를 보고 오 선교사가 반주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금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 부부와 전도사님 부부 넷이 반주도 없이 자작곡 찬양을 녹음하여 중국과 말레이시아 화교교회에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샤오 목사님은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성경 귀절을 가사로 하는 수백곡의 찬양을 작곡하여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녹음실도 없이 길가에 있는 교회에서 목소리만으로 작업을 해왔었는데 반주가 더해지니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6곡을 녹음하며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橫山교회에서,
마전도사와 오선교사

원주민 부락과 가까운 시골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적은 수의 교인들을 섬기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품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교회에도 매월 한 번씩 와서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중국/말레이시아에 보낼 찬양 녹음

문서 선교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 번역이 끝나고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정을 해주고 계신 분이 아주 꼼꼼하게 문장을 다듬을 뿐 아니라 내용에 대해 우리와 토론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번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화에 맞도록 새롭게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매주 1회 부부가 함께 우리 집에 오셔서 토론을 하고 원고를 다듬으며 식사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이 두 가정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대로 주님께서는 이 책의 번역과 교정을 통해 영혼들을 세워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감격이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번역하는 분들이 자원하여 대만 신학원 두 곳의 원장들에게 추천서를 부탁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께서 대만의 출판사도 순적하게 연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협력 목회: 현재 연결된 네 곳의 협력교회의 담임 교역자와의 멘토링 및 협력 사역을 통해 연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2. 문서 선교: 번역과 교정, 대만교회 목사 추천서, 출판사 연결이 순적히 이뤄지고 이 책에 기름 부으사 대만의 신학교와 교회에 많이 보급되어 선교하는 대만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3. 3월 12-13일에 계획중인 원주민(타알족) 부락의 빈곤가정 심방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자녀 (요셉-대학 4년, 혜진-대학원 1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믿음과 실력을 갖춘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게 하소서.

한결 같은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2022. 2. 23. 대만에서,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